

## 고려해운

연간수송량 100만TEU 돌파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이 11월 8일 연간 수송 물량 100만TEU를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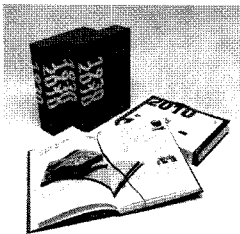
이날 고려해운은 부산항에서 100만TEU 돌파 행사를 가졌다. 100만TEU는 한 줄로 연결해 놓으면 약 6,096km로 지구의 반지름인 6,378km에 육박하는 수량이다.

고려해운은 현재 한국항발 화물 기준으로 아시아 주요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총 수송량 120만 TEU, 매출액 8,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00만TEU 수송은 아시아 중동지역으로 서비스하는 국내 중견선사로서는 최초이며, 2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라고 고려해운은 강조했다.

## 대한통운

대한통운 80년사 발간



대한통운(대표 이원태)이 11월 15일 창립 80주년을 맞아 '한국 물류의 역사 대한통운 80년사'를 발간했다.

대한통운은 이번 사사를 통해 1930년 창립부터 현재까지 회사와 물류산업의 주요 역사를 조명했으며, 특히 과거 산업발전기 중요한 운송이나 사건들을 통해 한국 경제의 발전사까지 짚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 8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대한통운 80년사'는 본책과 별책 2권으로 구성돼 있다. 본책은 1930년 대한통운의 전신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의 창립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2030년 미

래비전 등 총 6부로 구성돼 있다.

물류관련 전문용어나 과거에 사용되던 말들을 별도로 설명해 읽는 사사를 추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1962년 흡수통합됐던 당대 최고의 운송기업 조선운송 관련 역사도 새롭게 조명됐다.

별책인 '80개의 사건으로 보는 대한통운 80년사'는 창립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편찬됐으며, 해방 직후 유실될 뻔했던 조선어큰사전 원고의 발견, 김용룡 선수를 비롯한 명선수들로 구성됐던 대한통운 야구팀, 한국 최초의 사보 '조운' 등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한편 이원태 대한통운 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근 한세기에 걸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과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선배 임직원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닌 미래를 열어가는 교훈서로, 한국 물류사를 살펴보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SK해운

현대중공업에 VLGC선 발주



SK해운(대표 황규호)이 현대중공업에 8만 2,000CBM급 VLGC(Very Large Gas Carrier) 선을 발주했다

이번에 발주한 VLGC는 2013년 초 SK해운에

인도되어, 향후 20년간 중등으로부터 아시아 지역으로의 LPG 수송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SK해운은 SK가스의 LPG 수송을 위하여 두 척의 사선을 포함하여 총 다섯 척의 선박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건조계약식에서 SK해운의 황규호 사장은 “성공적인 증자와 더불어 이번 신조계약으로 Global Top 자원수송기업으로 성장해 가겠다는 계획이 더욱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조계약식에는 SK해운의 황규호 사장과 SK가스 최상훈 사장 그리고 현대중공업 오병욱 사장 등을 비롯해 3사의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STX팬오션 한국 남부 발전과 유연탄 COA계약 체결



STX팬오션(대표 이종철 부회장)이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과 2건의 장기운송계약(COA)을 동시에 체결하는 등 국내외에서 장기수송 물량을 잇달아 확보했다.

STX팬오션은 지난 11월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남부발전 대회의실에서 배선령 STX팬오션 대표이사, 남호기 한국남부발전 사장 등 관련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2건의 계약을 통해 STX팬오션은 한국남부

발전이 인도네시아와 호주 등지로부터 수입하는 발전용 유연탄 3,500만톤을 매년 230만톤씩 15년 동안 국내로 수송하게 된다. 이를 통한 매출 규모는 대략 3,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운임을 분할 지급하는 통상적인 결제방식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결제방식을 적용하여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STX팬오션이 15년의 계약기간 동안 받게 될 예상 운임의 20% 가량을 한국남부발전이 선(先) 지급함으로써 이를 선박 확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난해 금융위기 당시 한국남부발전에 의해 국내 최초로 시도된 계약체결 방식이기도 하다.

배선령 STX팬오션 대표이사는 이 날 체결식에서 “국내 선박 금융 시스템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운임 선(先)지급 방식을 통해 선박 확보와 관련된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화주의 높은 신뢰에 보답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전략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남호기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해운회사의 금융비용 절감으로 수송 원가가 낮아지게 되면 향후 발전 원가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계약은 화주와 선주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해운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케이에스에스해운 LG상사 109억규모 운송계약 체결

KSS해운(대표 윤장희)이 지난 11월 16일 (주)LG상사와 109억원 규모의 에틸렌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액은 최근매출액 1059억원 대비

10.33%에 해당하는 것으로 KSS해운은 이번 계약으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LG상사 에틸렌을 운송하게 된다.

KSS해운측은 “계약기간은 1년이나, 화주(LG상사)의 권리로 추가 1년에 대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금액(962만1975 달러)은 용선료, 연료비, 항비 및 Operation Fee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의 추정금액으로써 본선 운항패턴 및 연료유 단가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이 다소 증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진해운

부장 2명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한진해운(대표 김영민) 한국지점 구주판매팀 김문영 부장과 부산판매지점 공경식 부장이 11월 30일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 47회 무역의 날을 맞아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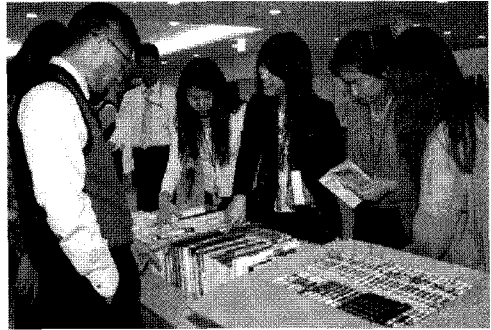
김문영 부장은 탁월한 세일즈 능력을 바탕으로 국적선사 최초로 서아프리카 지역 서비스를 개설, 주요 기업들의 수출선 다변화 및 해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이집트, 슬로바키아등 타국적 선사의 독점 서비스 지역에 항로 개설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공경식 부장은 우리나라 수입 화물의 인도 및 인수시 발생하는 화물인도 지시서에 대한 전자화 프로젝트에 참여, 무역업체와 물류업체간의 신속한 업무 처리 및 인력, 비용단축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동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한진해운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무역의 날에도 각각 50억불, 6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해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200여개의 해외지점과 30여개의 현지법인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 현대상선

아나바다 바자회 개최



현대상선(대표 김성만)은 여직원 모임인 ‘수평선회’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돕기 행사인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현대상선 ‘수평선회’는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연지동 현대그룹빌딩 사내 식당에서 이 같은 행사를 가졌다.

‘아나바다 바자회’는 임직원들이 기증한 의류, 신발, 가방, 주방용품, 장난감, 도서, 악세사리 등 총 200여점 중 150여점을 판매했으며, 판매되지 못한 물품은 모두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기로 했다.

‘수평선회’에서는 임직원들이 기증한 물품 이외에도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 판매했으며, 판매된 모든 수익금은 전액 종로구 결손가정에 기부할 예정이다.

‘수평선회’에서는 이번 바자회 판매와 별도로 모금함을 준비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기금 마련도 함께 펼쳤다.

한편, 현대상선 여직원 170여명으로 이루어진 ‘수평선회’는 매달 회비를 모아 아름다운 재단, 장애인 종합 복지관 등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

## 흥아해운

### 하이퐁 서비스 강화

흥아해운(회장 이운재)은 12월 둘째 주부터 한국 발 베트남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HPS2(Haiphong Service 2) 및 IHX(Incheon Haiphong Express)로 명명된 이 노선은, 최근 불안정한 세계 경기상황 하에서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하주 고객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개설되었다.

HPS2 LANE의 경우 광양항을 출발하여 부산-울산-홍콩-하이퐁을 기항할 예정이며, IHX LANE의 경우 인천을 출발하여 홍콩-하이퐁을 기항하는 순서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흥아해운은 이번 HPS2 및 IHX서비스를 추가로 개설함에 따라, 부산 발 주 3항차(수, 금, 토)와 울산 발 주 2항차(수, 토), 광양 발 주 2항차(화, 금), 인천발 주 1항차(금)의 직항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어, 대하주 고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게 됐다.

## 목포해양대

### 해운중개 전문가 양성 강화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안영섭)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본교 재학생과 산업체 대상으로 '해운중개 및 해양산업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과정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해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계 사장과 유관기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하게 된다.

특히 한국해운중개업협회 염정호 회장의 '용선계약실무', 본지 한국해사신문 홍석민 사장(박사)의 '선박관리업실무', 요트인 김인철 사장의 '요트마리아 중개 및 관리',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박정철 과장의 '해운정책실무'가 강의된다.

또한 신라해운 이정만 사장의 '해운중개실무', 변화혁신리더십 구열회 소장의 '협상취업실무', 명지대학교 최기영 교수의 '국제복합운송실무',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실 김진석 실장의 '해상보험실무', 포스코 경영연구소 김연준 박사의 '해운 및 조선시황'을 비롯해 검정검량 실무, 취업전략 실무 등이 이번에도 교육된다.

이 과정은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정책경영연구센터가 주관하고 해운중개업협회와 본지 해사신문이 후원하고 있으며 수료한 학생은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해운중개업협회 회장, 해사신문 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해양정책경영연구센터 노창균 센터장은 "이 과정이 해운중개 및 해양산업 분야에 취업은 물론 유사 분야 창업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 한국선급

### 기자재 사장단 초청 고객 간담회 개최

국내 유일의 국제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지난 11월 1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국내 기자재업계 사장단 및 관련 임원들을 초청하여 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기자재 업계의 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자리로, 한국선급 임직원 및 관련 업계 주요 인사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정도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기자재 사장단 초청 간담회는 처음으로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 상호 WIN-WIN 및 동반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선급 조남수 사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조선산업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세계 1위의 기자재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아직 다양한 방

면에서의 발전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기자재 산업 분야가 앞으로 고품질 선박의 건조와 운항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선급도 최선을 다하여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소량화물(LCL) 유치 본격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이상조)은 금년 말 준공예정인 ‘광양항 국제물류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난 11월19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양항 국제물류센터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포워드 및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컨’ 공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광양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량화물의 유치를 위하여 주요 국제물류포워더의 협력을 요청하고, 광양항의 현 안사향에 대한 물류전문매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광양항이 만재화물 처리뿐만 아니라 소량화물(LCL)도 처리하여 종합서비스항만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삼영국제물류 등 국내 국제물류업계 대표자와 물류전문지 10개사가 참석하여 광양항 국제물류센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 한국해양대

일본 홋카이도대와 공동 세미나 개최

지난 11월 12일 한국해양대학교와 일본 홋카이도대학교는 해양대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제2회 국제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두 대학이 공학 교육 분야에 대한 공동관심사와 최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연구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학술 발표 이후 한국해양대의 해양박물관, 해사종합시물레이션센터, 첨단마린조명연구소, 한바다호 등을 둘러보며 우리나라 해사산업 및 교육 인프라에 대한 견학 기회도 가졌다.

한국해양대 최일동 공과대학장은 “연구주도형 종합대학으로 전통이 깊은 일본 홋카이도대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는 양 대학 교수들 간 교류 활성화 및 국제적 흐름에 맞는 공학 교육을 개발하고 전파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해운조합

KSA Hull P&I세미나 성황리 개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은 지난 12월7일 약 300여명의 해운관련업계 인사들과 함께 ‘KSA Hull · P&I세미나’를 서울 장충동 신라호

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합원 및 해운선사와 보험사, 보험중개업체, 검정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상황 속에서 해상보험시장의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동 행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가 사회를 맡고 ▲ 선박보험 시장 동향 및 전망(코리안리 장철민 해상보험부장)을 시작으로 ▲ 선박충돌과 선주의 위험관리(법무법인 세경 김창준 대표변호사) ▲ 2011년도 P&I 계약갱신관련 선사의 확인 사항 및 재보험 시장 동향(Lloyd's 재보험 브로커 Mr. Paul Marketis) ▲ KSA 사업현황 및 비전(한국해운조합 가재경 사업본부장)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2001년 이래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KSA Hull · P&I 세미나는 해상보험 시장 동향을 포함하여 해상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국제 협약, 용선계약 및 각종 해상보험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개발교육원 준공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용우)은 지난 11월 25일 해양환경개발교육원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9,269㎡의 대지위에 총사업비 168억원을 투입한 해양환경개발교육원은 2008년 11월에 착공해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2년만에 완공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같은 중·대형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실제오염현장과 같은 해양환경을 갖춘 모래, 자갈, 테트라포트(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된 인공해안과 파도를 일으키는 조파수조를 일체화시킨 세계 최초의 훈련용 수조(발명특허: 10.8.20)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해양환경개발교육원에서는 내년부터는 법정교육

인 선박·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비롯해 전문방제교육과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양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함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해양환경교육 등을 연간 130회에 걸쳐 14,000여명을 교육을 실시하여 국내 최고의 해양환경 종합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날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용우 이사장은 “해양환경개발교육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해양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 역량을 제고시키는 세계 최고의 해양환경연구 및 교육의 메카로 발돋움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국토해양부 광인섭 물류항만실장, 어윤태 영도구청장,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 IMO(국제해사기구) Dr. Stefan Mcalleg 수석부국장, IOPC Fund(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 Mr. Jose Maur 사무국장 직무대행, MDPC(일본해상재해방지센터) 에이치 후카미 이사장 등 200여 명의 국내외 귀빈이 참석하여 해양환경개발교육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